

지속가능 생존을 위한 삶의 변화

- 살아남기, 자연에 의지하기

이 병 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일자리의 축소, 실질 소득의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고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생명계에 대한 재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 전역에 걸친 홍수, 태풍, 가뭄 등 대규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와 겹쳐 이제 인류 생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백년 또는 수백 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이변이 오히려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계절의 실종과 생존위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땅에서 봄이 없어졌다. 한 계절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얼음이 풀리고 새싹이 돋으며 잠깐 봄인 듯싶다가 어느새 여름 날씨로 되어버렸다. 이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던 이 지역이 오월에 코스모스가 피고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데, 이는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 생겨난 온실효과 기체 때문임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난 1,000년간 지구 표면의 온도 중에서 20세기의 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구온난화의 절반 정도가 70년대 후반에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도 지난해가 가장 더운 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보건데 아마도 올 여름은 더욱 무더운 계절이 될 것 같다. 산업문명 그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지 온난화 뿐 아니다. 지금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대 도시뿐 아니라 북극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체내에 PCB, DDT,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성 화학물을 비롯한 미량의 잔류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그 독성 물질은 어머니들의 임신과 수유(모유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의 농도가 기준치의 26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99년, 일본 후생성)를 통해 화학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되었다. 우리가 물질적 편리와 풍요를 위해 사용했던 그 유독성 화학 물질들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돌아와(유독 물질의 90%는 음식을 통해 다시 섭취) 그것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버린 쓰레기의 최종 종착역은 인간이다. 되갚음인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우주 대 자연의 법칙이 아니던가. 쓰고 버리는 삶과 그 문명의 필연적인 대가로 새로운 원죄가 시작된 것이다.

광범위한 인공적 화학물질들이 호르몬 등 성적 발달과 생식문제들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는 테오 콜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저술된 「도둑맞은 미래」에서 잘 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적 화학 물질들은 정자 수 감소, 불임, 생식기 기형 및 호르몬이 유발하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각종 암뿐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복합오염 시대, 온통 유전자 독극물의 천지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독극물에 오염되면 수정이 잘 안될 뿐 아니라 유산, 사산, 기형아 등의 출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만연한 이런 화학물질은 생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 특수독성으로서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催奇形性) 물질이 있는 것으로,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사이에는 90%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과 인간성의 파괴라는 사회 윤리적 문제조차 환경 오염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기가 오염되면, 오염된 대기 속의 납, 망간 등 중금속이 뇌에 침투하여 뇌의 신경교 세포 기능을 차단, 교란하여 살인 성범죄 등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원인으로 대기가 오염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그 범죄 발생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이 밝혀진바 있다. 우리의 서울 하늘에선 지난 95년 10월 이후 더 이상 무지개가 뜨지 않고 산성 비, 산성 눈, 산성 안개에 이어 이제 이 지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것으로 상징되던 아침 이슬마저 산성 이슬이 되어 맺히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 속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인간의 종족 번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 호르몬 물질까지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에 이미 레이첼 카슨은 인공 살충제 등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로 인한 시급한 위험들을 경고했다. 이제 그 경고대로 재앙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레이첼 카슨의 마지막 경고는 이렇다.

“동물실험에 의해 그 효과가 축적된다고 증명된 매우 유독한 화학 물질들에 의해 우리들 대부분은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그 위험은 출생 때나 출생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 그것은 지속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정신질환이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전 국민의 20%가 불안, 우울, 정신분열, 약물 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급기야 이제는 초등학교 1년생의 8%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면화된 재앙

지금 우리들 대부분은 거의 웃지 않는다.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던 우리 인간들이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명화 할수록, 도시화 할수록 웃음은 사라졌다. 지난 40년 전에 비해 웃는 회수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어린이들이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 웃는데 비해 성인들은 15번도 채 웃지 않는다고 한다. 웃음이 가장 좋

은 보약이라는데도 왜 우리는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가. 생명의 건강성과 활력, 삶의 의미와 보람이 사라진 자리,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불안하다. 우리의 삶, 일상생활 자체가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이제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외치는 사회에서부터 '두렵다'라고 외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위험'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핵심적 요인으로 되어버림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단지 위험한 사회만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보다 근원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그 두려움은 생존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다.

지난 해 가을, 코넬대학은 「일상생활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망인구의 40%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엘리뇨 등 이상 기후가 이 같은 수치를 더욱 높일 것이며, 사람이 넘치는 도시 생태계에서는 잊혀졌던 질병들이 다시 발생하고 새로운 질병까지 만연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온난화 등으로 야기되는 기상 이변은 들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매년 공기 오염 물질이 40~50억 명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수 백만 명이 환경 재해자가 될 것이고 특히 주거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필사적으로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은 단순한 징후로서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리를 문명의 진보와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자연을 약탈, 파괴하고 생명을 상품화하고 존재가치를 수단으로 삼아온 결과 지금 우리는 생존 그 자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재난 가운데서 가장 우려스러운 사태가 곧 식량부족으로 인한 재앙이다. 식량 대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바로 휴전선 너머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 수는 최소한 210만명 이상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전체 주민의 10%에 달하는 숫자이다) 굶어 죽어 갔고, 지금 식량위기로 인한 재앙은 지구촌 전체에서 더욱 심화되어 이제 식량 자급도가 30%에도 채 못 미치는 우리의 목숨 줄을 구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미 세계 어장의 60%가 고갈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양쯔강유역의 홍수는 더 이상 우리의 목숨 줄과 무관하지 않다. 어차피 사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막상 이처럼 재앙이 눈앞에 덮쳐오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 기상이변 등 재앙의 근본 원인이 모두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온 어리석은 탐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업자득인가.

이 세상, 이 지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선 풍요롭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선 궁핍한 곳이란 경구가 아니더라도 삶의 진정한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바탕한 편리와 풍요와 쾌락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착취하는 생산양식, 이른바 반 자연

적인 산업문명과 쓰고 버리는 식의 파괴적인 소비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환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줄곧 이 한 길을 달려왔고 이제 막다른 벼랑 끝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면 죽음의 벼랑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잘 달리고 있다고, 이 길을 계속 달려 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금의 IMF사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보듯 여전히 우리는 오로지 물질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의 논리에만 하나같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국이라는 것도 결국 그 본질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반하는 잘못된 생산 양식과 탐욕적인 소비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자명함에도 말이다.

IMF위기라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고통이 아니듯 이른바 아시아적 경제의 위기라는 것도 또한 아시아만의 경제적 위기가 아님은 입증되고 있다. 세계 경제공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 뿐 아니라 공업화 중심의 산업문명과 자본주의 자체의 종말에 대한 예측까지 분분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구 천연자원의 30%가 불과 지난 25년 사이에 고갈되었다는 지적에서 보듯이 물질 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무한성장신화의 허구성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명의 종말과 혼돈

한 세기가, 한 문명이, 그리고 인류 천년의 역사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과 그 문명은 무엇인가. 갈수록 재앙은 심화되고 혼돈 속의 어둠은 짙어 가는데 아직 새 길은 뚜렷하지 않다. 모두가 불안하다.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 지금의 산업문명이 그 자체의 한계로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다면 새로운 문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지구 생태학자이며 문명사가이기도 한 토마스 베리는 보다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그는 현대가 문명사적 전환을 넘어서서 지구 차원의 지질학적이고 생태학적인 대이변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는 6,5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의 시기가 끝나 가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신생대 종언 이유는 현대 산업문명이 지구의 생태계를 근본적 차원으로부터 변화 시켰기 때문인데, 현대 산업문명은 인간사회의 구조와 기능만을 몹쓸 쪽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지구의 화학적 성질과 생태계와 지형, 심지어는 지리적 구조까지 변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구 표면에 해당되는 오존층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 위에서 수천만 년 또는 수십 억년 동안 발전해온 역사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일로서 이는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 짓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전의 인류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변화나 문화적 변화를 능가하는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는 태초에 지구의 지각 형성과 생명의 발생, 그리고 인류의 출현이후 이처럼 중대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나 문명사적 전환기가 아니라 지구의 지질학적이고 생태론적 전환기라는 것이다. 그

는 신생대가 끝나는 이런 근거로서 생물의 멸종현상을 들고 있다. 베리에 의하면 고생대가 끝날 무렵인 2억 2천만년 전과 중생대가 끝날 무렵인 6,500만 년 전에도 대규모의 멸종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지구 차원의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의 멸종 문제는 그동안 국제자연보전연맹, 세계환경보전연맹, 세계자연보호기금 등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위협성을 줄곧 경고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 식물학자 단체인 '국제식물총회(IBC)'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자연환경훼손이 계속될 경우 100년 뒤에는 조류, 포유류, 나비, 식물 등 동식물의 3분의2가 멸종될 것이며,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열대 우림지대의 95%가 파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물의 경우 지구상의 30만종 중 이미 5만종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25년 동안만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21세기말에는 20만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식물이 멸종되면 필연적으로 동물의 멸종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상의 동물도 향후 100년간 3분의 2가량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다. 이처럼 하루에도 무려 100여 종이 넘게 생명체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같은 종의 대규모 멸종 현상은 인간의 생존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 지상에서 어떤 종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단순한 다양성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생명, 이 지구에 사는 하나의 공동체인 그 생명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저 창 밖의 나무가 없어지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이상 멸종 문제를 연구해온 폴 에얼리히는 대규모의 동식물 멸종의 행위로 인해 인류는 끔찍스러운 핵전쟁의 참화와 비슷한 결과를 스스로에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핵폭발 이후 핵겨울에 뒤따르리라 예상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멸종이후에는 이 지상에 전면적인 기아와 전염병이 번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구 생태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의 경고와도 동일하다. 지구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행성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가이아(Gaia)학설을 주창하고 있는 러브록에 따르면 열대림의 70~80% 이상이 일단 파괴되면 그 나머지로서는 기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지구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간다면 금세기 안에 열대 숲의 65퍼센트가 제거되어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된 뒤에는 순식간에 숲이 사라져 버려 그 지역에 사는 수십 억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막 속에 방치될 것인데, 이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 어떤 핵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이러한 임박한 재난에 덧붙여서 지구는 다음 수십 년간에 중요한 변환기를 겪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임박한 주요 기후 변화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변화는 빙하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것보다 두 배 혹은 여섯 배나 큰 변화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경고와 지적이 아니더라도 생각해 보면 현대문명이라는 것이, 인류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물질적 발전과 진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인류가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 또는 그 문명이라는 것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95년, 한신 대진재(大震災)로 불렸던 저 고베(新戶)의 지진의 경우, 불과 한 순간에, 일

본이 자랑하던, 아니 현대문명이 자랑하던 그 첨단 전자 시스템의 눈부신 기술과 물질문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참으로 눈 깜박할 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른바 현대 문명사회, 도시문명의 그 첨단 생활을 유지해 주던 목숨 줄인 라이프 라인(Life line)은 한 호흡도 안 되는 찰나에 끝장나고 그 문명을 건설했던 인간들은 추위와 암흑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생존의 불안으로 떨어야 했다. 참으로 우리는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것이 결코 무너질 리 없다고 주술처럼 되뇌어 왔는지 모른다.

지금 정보화만이 새로운 대안이라 믿고 그것에 인류의 내일을 위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정보화,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가상현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환경 생태문제 등 생존위기와 삶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상공간에서 무제한적 만남을 선물하는 것으로 선전된 그 인터넷이 실제로는 인간에게 외로움과 우울증을 오히려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카네기 멜런대 연구팀에 의하면 일주일에 인터넷을 1시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우울증의 강도가 평균 1% 올라가고 사귀는 사람들의 수(평균 66명)는 2.7명 줄어들며, 고독감 지수는 0.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우편으로 유지되는 알팍한 가상공간 관계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 형성에 필요한 상호의지와 따뜻한 정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화의 한계는 처음부터 본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정보화란 현대과학의 산물로서 현대 산업문명과 동일한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 경쟁, 자연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에 바탕한 이러한 정보화 문명을 통해선 인류의 당면한 생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정보화를 통한 편리함과 풍요로움이란 이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이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목표인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치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양식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한갓 관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를 보완한 개념으로 제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92년 리우환경회의)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불행히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으로 보건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당면 과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존'을 이루어 갈 것인가의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천년이 마감되는 20세기의 후반에 들어 인류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자각하면서 제기한 화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다면 이제 새 천년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생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위기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 생명계의 위기이며 그런 점에서 지금을 생명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위기 속에서의 생명살림'이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개인의 삶과 사회집단의 운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와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생명살림, 그것은 가치관과 운

동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종말론적인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이 혼돈과 재앙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위기 앞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대답이다. 그렇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가. 문제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로가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 그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과 그 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마취에서 깨어나 사태의 절박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문명, 현대문명 그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현란한 광고와 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상품이 갖는 사회적 권위와 여유에 대한 욕망을 조작해내고 그 욕망에 따라 상품은 생산되고 소비된다. 상품이 생산됨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생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곧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내는 욕망에 따라 소비되는 것이다. 욕망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 결과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될 뿐이라고 장 보드리야르는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산업문명, 끊임없이 소비를 강제하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한 쓸모가 무엇인지를 잊어 버렸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그 분별지(分別智)조차 상실해 버린 것이다. 결국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편리란 자연 생태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 쓰고 버리는 또 다른 소비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누군가 지적했듯이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한들 인간다운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고도의 편리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생명이 위협 당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살기 위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와 화려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닥쳐오는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인가. 환경재난과 기아의 시대를 사는 길, 그 길은 한 길뿐이다. 지금 살아온 우리 삶과 그 문명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모태인 자연 생태계를 파괴 약탈하고 소모 고갈시키며 죽이는 것에 바탕해 왔다면 이제는 자연과 함께 조화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길뿐이다. 우리의 불안, 존재 저 깊은 곳에서부터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 뽑힌 존재라는 자각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가 자연을 거슬리는 문명과 그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것이라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삶의 지혜를 찾아 자연의 풍요에 동참하는 길이 생존을 위한 대안이자 건강하고 바른 삶의 길인 까닭이다.

생각해 보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 중에서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가 자연을 거슬리면서도 자기 생존을 유지해 가는 것이 있는지를. 자연 속의 생명체들은 모두 자연에 의지함으로써 자기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마련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IMF 위기라는 것이 한마디로 비자립적인 삶, 그 살림살이의 위기라면, 우리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꾸려가지 못하는 한 당면한 경제적 위기로부터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건강한 삶, 자립적인 삶이란 자연적인 삶이며 그것은 자연을 의지처로 삼아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삶인 것이다. 자연이 자신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깃든 모든 생명을 기르고 먹여 살리며 풍요를 누리는 원리를 배우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안임은 이제 분명해 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삶인가.

자연에 의지하기

인류가 밝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선 자연을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친화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로 이해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자연의 방식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빅터 사우버거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대지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대지의 질서를 어기는 자는 어머니 대지 위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설파한다. 자연에 맡겨라(無爲自然). 인위(人爲)가 그 한계를 넘어 재앙으로 치닫는 사태에서 천지자연이 어떻게 못 생명을 길러내는지 그 법칙을 배우고 따르는 삶의 지혜가 참으로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자립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뿐이다. 진정한 자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이란 자립적인 삶, 평정한 마음 그리고 지금 살아 있다는 행복감이라고 한다. 우리의 삶이 자립적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풍요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연과의 교감 체험이 없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흙을 의지처로 삼는 삶이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이,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일구어 가는 일이다. 옛 조상의 삶, 인디언의 삶의 지혜가 그 한 본보기일 것이다. 이처럼 흙에 바탕한 단순 소박한 삶 곧 땅을 토대로 한 간소하고 올바른 살림살이와 그 단순 소박함 속에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실현해내는 것만이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농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고향이 농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근거, 우리 존재의 뿌리 그 근원 자리가 농촌이고 흙이기 때문이다. 농업이야말로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그 원리와 질서에 따라 지속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불행은 산업화를 통해 농업을 포기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경구처럼 자연을 약탈하는데 그 기반을 둔 도시 산업문명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환 공생의 농(農)적 문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 농업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땅이 죽으면, 농촌 농업이 죽으면 그 어떤 미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병든 심신을 치유하고 그 삶과 사회를 치유해 내는 유일한 길은 땅의 치유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뿐이다.

그러므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삶이란 농업을 통해서 멀어져 버린 땅으로, 자연으로 다시 다가섬으로써 자연이 준 본원적인 생명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삶과 그 문명을 실현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는 직접 몸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들이 생명이 움 터 자랄 수 없는 아스팔트 시멘트를 벗어나 흙 속에, 자연 속에서 뛰놀며 생명을 기르고 가꾸고 돌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치와 지혜를 익히는 일은 아이들의 생명력과 감성을 회복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아이들이 이루어 갈 새로운 내일 그 문명을 준비하는 일이다.

공멸에서 상생으로

불행히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는 많지 않다. 설혹 닥쳐오고 있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며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되는 동안만이라도 자연과 조화되는 삶의 건강성과 풍요로움을 누리야 할 때이다.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혼돈과 환란이 임박한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살아남기, 그래서 새로운 삶과 그 문명을 열어가기, 모두 함께 죽어 가는 공멸의 생존 위기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의 상부상조로,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 있음이 절실할 때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시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그 위협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 못하면, 인간은 미래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 버렸고 그래서 마침내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경고대로 우리 또한 열탕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쓰고 버리는 삶의 편리함, 도시 문명의 화려함의 정체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저 야만성 또한 직시해야 한다. 물신 숭배에 세뇌되고 중독된 우리의 탐욕과 그 두려움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이 살길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근본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자신의 존재와 그 삶을 위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거듭남, 그 정화의식(淨化儀式)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듭나기, 그것은 우리는 우주 대생명의 한 부분이며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이라는 자각, 어머니 자연에 의지할 때 우리는 무한히 풍요롭다는 자각. 그런 깨어있는 통찰력에서 온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본성, 거룩한 신성의 드러남이며 우리 모두는 한 생명계 그 생명나무의 여러 잎새와 꽃이라는 인식, 그런 영성의 회복에서 온다. 생태맹(生態盲)을 극복한 자리에서 상생의 삶과 그 문명을 열어가갈 생태적 인간과 생태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생태맹의 극복과 생태적 인간의 탄생이란 농심(農心)의 회복, 모성의 회복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것은 기르고 돌보는 마음이며 아끼고 섬기는 마음이며 한 생명, 한 물건을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의 거듭남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존재방식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을 읽는 지혜이고 자연을 따라 사는 삶이다.

자연이 자신을 유지해 가는 원리는 상생(相生)과 순환(循環)에 있다. 상생이란 자연속의 모든 존재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곧, 서로에게 충실한 생명의 밥이 되는 관계이며, 순환이란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다시 밥이 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생,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이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풍요로운 것은 알뜰함(嗇)과 검소함(儉)에 있다. '아낌'과 '검소함'이야말로 모든 풍요의 근본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인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 모든 사물이 자기와 하나임을 깨닫고 제 몸을 돌보듯 아끼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 각기 다 자기 존재의 소임이 있음을 알고 불필요한 소비, 그 욕망을 줄이는 것 이러한 알뜰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이 자족적이며 자립적인 삶의 건강성과 풍요로움을 이루는 도리인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고 쓰레기가 없는 것은 이처럼 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는 그 알뜰함과 아낌에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물질적 풍요와 편리에 바탕한 쓰고 버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심신을 황폐화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 왔던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나무의 가지 끝을 열어붙게 하는 한 겨울의 삭풍 속에서 저 새 봄의 찬란한 축제가 시작된다. 종말론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그것은 근본으로, 다시 생명의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보다 단순 소박한 삶 속에서 자연과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며 땅을, 흙을 기반한 작은 마을들, 그 생태적인 공동체마을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이 새 천년의 화두인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 귀농을 통한 삶의 전환은 자연에 의지하여 자립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자 재앙을 대비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